알쏭달쏭 불교, 설정스님 법문에 프랑스 학생들 '아하'

■ 프랑스 '1700년 한국전통산사와 수행자의 삶' 현장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

프랑스 동양학대학 이날코
한국불교 반세기 경험 특강
시민 학생들 질문 쏟아져…

총무원장 스님 프랑스어본
한국불교전서 기증 문화외교

"스님, 세속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은 언제 처음 들었나요? 출가를 하고 난 이후 진정한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한 확신에는 변함이 없었나요?"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의 특별 강연이 열린 지난 10월27일 프랑스 동양학대학 이날코(INALCO) 대공연장.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의 질문에 설정스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단 한 번도 출가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 스님된 것을 최고의 선택이라 생각한다. 부모님이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을 접했고 (출가에 대한 생각은) 이른 나이에 형성된 것 같다. 일반적으로 돈과 명예를 최고의 가치라 여기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부여한 가상의 가치일 뿐이지 진정한 것은 아니다." 스님의 간단명료한 답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

또 다른 남학생도 스님에게 질문을 던졌다. "서양 종교는 절대적 존재에 대한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데, 불교는 이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그러자 설정스님은 "불교는 서양적 개념의 종교가 아니다. 사고와 언어가 끊어진 곳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신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한 시민의 질문에도 "자신의 부족한 점을 해소하고 지혜를 증득해 자기를 완성하고, 수행정진 한 원력을 중생을 위해 베푸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삶을 사는 수행 집단"이라고 피력했다.

설정스님은 이날 법문을 듣기 위해 대공연장을 찾은 현지 학생과 시민들을 위해 '한국불교 반세기의 경험'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스님은 200여 좌석을 가득 메운 청중을 향해 60여 년 수행자로서의 삶과 인생의 영원한 화두인 '어떻게 살 것인가'를 놓고 약 한 시간 동안 법문했다. 이날 야닉 브루닉통 파리7대학 한국어과 교수가 통역을 맡아 언어의 장벽도 자연스럽게 허물어졌으며, 학생들도 법문 내용 하나라도 놓칠세라 노트에 꼼꼼히 필기해가며 스님의 말에 경청했다.

이날 설정스님은 "부처님 법을 잘 믿고 수행해 견성을 이루는 것이 진정으로 부모님 은혜를 갚는 길"이라며 "예전 출가했을 때 가난 속에서도 50여 명의 대중이 부처님에 대한 견고한 신심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존중하며 공부에 매진했던 그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떠올렸다. 스님은 또 수행자를 일컬어 "만능 탤런트와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중을 위해 숙련된 의식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고, 밥과 찬도 잘 해야 하며 늘 공심을 지녀야 하는 게 수행자의 기본자세라고 강조했다. 또 청정한 마음, 지혜와 자비를 불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다. 끝으로 스님은 "'나'라고 하는 집착, 그것만 놓으면 영원한 자유, 걸림없는 무한한 자기 지혜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설정스님 강연에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야닉 브루닉통 파리7대학 한국어과 교수에게 〈코리언 부디즘〉(한국불교전서) 프랑스어본을 전달하는 기증식도 있었다. 〈코리안 부디즘〉은 2011년 조계종 대표단의 파리 방문 때 한국 불교에 대해 알고 싶어도 관련 책을 찾기 어렵다는 현지인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한 총무원장 스님이 직접 기획·제작한 것이다. 한국불교 역사와 수행자가 되는 과정, 한국 산사 등 1700년 역사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총 14권의 책으로 엮었다.

이날 기증식을 계기로 한국불교를 보다 널리 알리고, 한국과 프랑스간의 문화교류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총무원장 스님도 책 서문에 "한국불교는 아시아권 밖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미지에 가까운 영역으로 남아있고, 이는 해외에 소개된 서적이나 번역서의 빈약한 수가 잘 증빙해 주고 있다"면서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불어권 독자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파리=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10월27일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의 '한국불교 반세기의 경험' 특강을 듣는 현지 학생과 시민들은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노트에 꼼꼼히 필기하면 경청했다.(사진①) 앞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②자크랑 전 문화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전통산사 7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모색한 데 이어 ③야닉 브루닉통 파리7대학 교수에게 〈코리언 부디즘〉(한국불교전서)를 증정하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쳤다.

"불교문화와 유네스코 업무 불가분의 관계"

총무원장 스님, 파리 순방 기간
'문화대통령' '국가개혁장관' 면담
문화교류·우호증진 방안 논의

한국불교 문화를 알리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자승스님은 지난 10월25일 프랑스의 '문화 대통령'으로도 불리는 자크 랑 전 문화부 장관 면담을 시작으로 26일 주불한국대사 주최 오찬에 이어, 27일은 장 뱅상 쁠라세 국가개혁장관과 면담을 갖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같은 날 27일 오후에는 이병현 유네스코 한국대표부 대사와 유네스코 대사관 관저에서 만찬을 갖고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사는 한국 전통산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 대사는 "불교와 관련된 세계유산이 많고 무형이나 기록유산에 있어서도 산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불교문화와 유네스코 업무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한국 산사만이 갖고 있는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제대로 드러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도 "연등회를 포함해 불교무형문화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지원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자크 랑 전 문화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전통산사 7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과 봉은사의 옛 땅 한전부지에 조성되는 현대차그룹 통합사옥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건립 계획의 부당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총무원장 스님이 "1300년 역사를 가진 전통사찰 봉은사와 가까운 553m 거리에 103층 높이이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히자, 자크 랑 전 장관은 "이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이뤄진다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큰 논란이 될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일정을 조정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도 피력하기도 했다.

프랑스 파리=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2017년도 종단 장학승 선발 공고

본 종단은 다양한 분야의 승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급변하는 현대사회를 선도하고, 종단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본종 스님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17년도 종단 장학승' 선발을 공고합니다.

불기2560(2016)년 10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승가교육진흥위원장 자 승
장학위원회 위원장 보 광

■ 선발 개요

1) 선발대상
① 국내 장학승 : 국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석 ·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본종 소속의 승려(종립대학 및 일반대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
② 해외 장학승 : 해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석 ·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본종 소속의 승려(일본, 중국, 인도 · 동남아, 미국, 유럽 등 전지역)
③ 사찰승가대학원 장학승 : 조계종법에 의해 설립 · 인가된 승가대학원의 전문 · 연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본종 소속의 승려

2) 자격요건 : 구족계를 수지한 승려로 종헌·종법 및 제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선발인원 및 전공분야

구분	국내 · 외 일반대학원 장학승	사찰승가대학원 장학승
선발 분야	가. **불교학** ○명 • 초기불교 • 대승불교 • 선불교 • 계율(율장 · 청규) 나. **불교사** ○명 • 한국불교사(근 · 현대)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일본불교사 다. **불교문화** ○명 • 불교문화(문화 · 예술 · 건축 · 콘텐츠) 라. **응용불교학** ○명 • 불교윤리학(생명 · 생태) • 종교법무 • 불교사회학, 비교종교학, 철학일반, 불교심리학, 사회복지정책 中 마. **언어학** ○명 • 불전언어(빨리어, 범어, 티벳어, 중국어) • 일반언어 바. **기타 전공(불교학 이외)** ○명 • 문화 • 예술 • 철학 • 법학 • 의학 • 기타	가. 율학 ○명 나. 선학 ○명 다. 한문불전 ○명 라. 초기불전 ○명 마. 중관유식 ○명 바. 능엄, 화엄 ○명

※ 종단의 교육, 연구의 제분야 중 취약한 '계율', '한국불교사(근 · 현대)', '불교문화', '종교법무' 분야를 우선 선발함

4) 장학금 지급내용
① 선발된 장학승에 대해서는 해당 과정(석사 또는 박사) 수료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함.
② 장학금은 등록금 및 연구비 등을 포함하여 책정함.

5) 가산점 부여 내용
① 4, 5급 승가고시 우수 합격자로 표창 받은자
② 교육원에서 실시한 각종 공모전 및 평가고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수상한자
③ 현직 교육교역자(상주교수)

■ 제출서류

구분	국내 · 외 일반대학원 장학승	사찰승가대학원 장학승
제출 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수학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③ 수행이력서(종단양식) ④ 재학증명서(진학예정자는 입학 허가서 제출) ⑤ 학부와 대학원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재학생의 경우 신청시점까지의 성적증명서) ⑥ 서약서(소정양식) ⑦ 추천서(지도교수 1인의 추천서) ⑧ 재정보증서(은사스님) ⑨ 유언장(종단에 유언장을 이미 제출한 경우는 제외)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연구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③ 수행이력서(종단양식) ④ 재학증명서(입학예정자는 입학 허가서 제출) ⑤ 서약서(소정양식) ⑥ 교육기관장의 추천서 ⑦ 재정보증서(은사스님) ⑧ 유언장(종단에 유언장을 이미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장학승 선발에 필요한 제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아 제출하십시오.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 공지사항(공지번호:2925) ⇨ 2017년도 종단장학승 선발공고

■ 장학승 의무사항

1) 결과보고
① 과정 수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1부 및 학위수료증 사본 1부 제출
② 학위 취득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1부, 취득학위증 사본 1부, 논문 2부 (외국어 논문의 경우 한글 요약서 첨부) 제출

2) 소임 의무
장학승은 해당 학위 취득 후 '장학금지급및관리에관한령'에 의해 종단이 지정하는 곳(중앙종무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찰 등)에서 수혜기간 만큼의 소임을 수행하여야 함.

■ 접수기간 : 2016년 11월 7일(월) ~ **12월 2일(금) (4주간)**
■ 결과발표 : 2016년 12월 중(조계종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접 수 처 : 대한불교조계종 장학위원회 (교육원)
우)03144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 E-mail: kanghj@buddhism.or.kr
전화: 02)2011-1812, 팩스: 02)732-4926